

### 제 3 강.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교회의 변화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굵다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주로 획기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기원후 70 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통해서 유다교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죠. 로마 제국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 처참하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유다 땅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버려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국가가 1948 년에 세워지기 까지 거의 1900 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삽니다.

특히, 유럽에서 유대인들의 차별과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죠. 2 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600 만 명이 죽어요. 전 유대인들의 2/3 가 죽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수는 없으니, 국가를 세우고 고향땅으로 돌아가서 살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하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니,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조상은 같은 사람이니 팔레스타인 땅이 서로 자기네들 조상들의 땅인 셈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무너진 이후 아직 재건을 못했습니다. 이미 이슬람 땅이 되었고, 이슬람교도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거기다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동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동쪽 벽에 모여서, 매일 울며 기도합니다. 수백명이 모여서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해요.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주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가고, 이렇게 주변 헬레니즘 문화 속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70 년 성전 파괴이후 일어난 일들이에요.

두번째로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313 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로마 제국에서 약 250 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교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391 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됩니다. 그후에, 그리스도교는 황제와 국가의 지원 속에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제국의 공식 교회로 성장 발전해 갑니다.

박해 시대에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순수한 신앙과 열정으로 생존해 온 교회는, 제국 교회로 성장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서서히 타락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도생활을 하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지난 시간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획기적인 또 하나의 사건.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버리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476 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대하고 위대한 제국이었어요. 문화, 예술도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지금까지도 로마 제국의 문화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달력, 1년 365일, 12개월, 1주일은 7일, 이 달력이 바로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라틴어로 쓰여진 역사, 철학, 문화, 예술의 경지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였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대제’라고 부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제국의 동쪽인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아시아 쪽에서 계속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던 거예요. ‘비잔티움’은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으로,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짓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다음에 즉위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광대한 로마 제국을 서쪽과 동쪽으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합니다. 이때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분할이 되는 거죠.

서로마 제국은 북쪽에서 이민족들이 자주 침입합니다. 그때, 아주 힘세고, 무식한 야만족들이 서로마 제국의 북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국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앙은 황제의 권력 다툼이 잦았습니다. 황제가 암살 당하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고, 또 그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그렇게 중앙 권력이 계속 약화되기 시작해요.

452년에 훈족의 침략, 455년 반달족의 침략으로 서로마 제국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아주 강력한 황제의 권력과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중앙 집권체제를 강하게 유지합니다. 든든한 성벽을 짓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아직도 터키 이스탄불에 남아 있어요. 그 도시가 아직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서로마 제국보다 천년이 넘게 더 존속됩니다.

서로마 제국을 점령한 게르만족은 로마의 선진 문화와 예술, 그리고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놀랍고 찬란한 로마의 문화 예술에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은 큰 감동과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문화 유산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리스도교도 그렇게 새로 유입된 게르만족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돼요.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민족들에게 새롭게 전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서로마 제국을 점령한 게르만족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주교와 성직자들에게서 예술과 문화, 종교 등 선진 문명과 학식을 배우고, 제국을 다스리는 조언을 구하는 등, 성직자들을 스승으로 삼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사회 질서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합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위치에서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고, 로마의 주교였던 교황은 그때부터 사회 문화 종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위치가 됩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에서 교회는 여전히 강력한 국가 권력과 황제의 권력 아래 통치를 받게 되죠.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는 황제의 권력 아래에서 여전히 황제의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에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회에 적응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 발전을 해 나가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로마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로마의 많은 시민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로마는 ‘하느님의 도성’이라고 믿었는데, 왜 로마가 하느님도 모르는 이민족들의 침략에 멸망했는지 사람들은 신앙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교를 원망하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로마가 멸망한 것은, 원래 믿었던 로마의 전통 신들을 배반하고 그리스도교를 믿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는 사상이 퍼지고, 다시 로마의 옛날 신들을 숭배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때 등장한 유명한 신학자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에요. 거의 몇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처음에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전혀 없었고, 마니교에 빠져있었죠. 18 살에 만난 어떤 여인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절실한 기도와 권유 덕분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언변과 설득력, 탁월한 논리와 천재적인 학식으로 그리스도교 신학과 교리를 정리하고 발전 시킵니다. 특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그리스도교에 회의를 느끼고 신앙을 떠나려던 시절, 교회에 관한 놀라운 교리들을 세웁니다.

로마가 하느님의 도성인데 멸망하게 된 까닭은, 믿음 없이 신앙 생활을 해온 신자들의 잘못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여전히 로마 사람들은 잔인하고 퇴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즐겨왔고, 참된 믿음을 갖지 않았었다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하느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아직까지도 출판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당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회의와 비판적인 논쟁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신학과 교리를 정리하는데, 그 신학은 현대 교회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아주 놀라운 업적을 이룬 성인이 이 시대에 한 분 계신데, 히에로니무스 성인입니다. 영어로 ‘제롬’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얼마전, 405 년에 히에로니무스 성인이 성경을 라틴어로 완전히 번역해요. 이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 성경’입니다.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죠. 그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바로 히에로니무스 성인입니다.

라틴어 번역본인 이 ‘불가타 성경’은 이후 천 년 넘게, 로마 가톨릭의 정통 경본으로 사용됩니다. 이 라틴어 번역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교가 더욱 빠르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족이 그대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새로운 문화 속에 적응하고 빠르게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민족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복음 선교 사업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그레고리우스 1 세 교황은 북유럽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파견합니다. 북쪽의 섬 영국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유럽지역인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해요. 이때 북유럽의 많은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지역이었던 아일랜드에는 많은 수도원들이 생기고, 수도원 학교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아일랜드는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학문의 중심이 됩니다.

그 수도원들에서 다시 많은 선교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파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북유럽지역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이때 아일랜드에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던 패트릭 성인이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이 됩니다.

결국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때는 비극의 역사였지만,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면, 신앙이 전 유럽 지역에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서유럽과 북유럽 지역으로 교회는 계속 전파되어 나가고, 로마의 주교인 교황은 이때부터 서유럽 전체 교회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합니다.

후에, 게르만족과 여러 이민족들이 서유럽 지역을 분할해서 점령 해 오다가, 486년에 건국된 프랑크 왕국이 유럽 전 지역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프랑크 왕국은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로 분할이 되죠.

프랑크 왕국 시대에 샤를마뉴 황제가 있었어요.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800년에 레오 교황이 대관식을 주관하고 황제로 즉위시켰던 왕입니다. 샤를마뉴 황제는 교회를 위한 눈부신 업적을 이룹니다.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고, 신심이 아주 깊었던 황제는 수도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수도원 안에 우수한 인재 양성과 학문 탐구를 위한 학교를 짓습니다.

이때 수도원들은 교회 학문의 중심, 영성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교회 학자들을 양성하고 도서관을 짓고, 그리고 많은 교리서와 신학서, 철학서들을 편찬합니다.

이때가 유럽 문화, 예술, 종교의 전성기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의 찬란한 문화와 예술이 북쪽 이민족들과의 전쟁으로 많이 파괴가 되었었지만, 샤를마뉴 황제 때 거의 복원이 되었고, 교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은 유럽 전체 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수장으로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반면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거의 천년 동안 더 지속된 동로마 제국도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특히, 610년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생겨난 이슬람교가 동쪽에서 계속 세력을 확장해 옵니다.

안티오키아, 에페소, 고린토 등의 소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북부와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모두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아주 강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파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모두 이슬람에게 서서히 정복되고 맙니다. 지금까지도 이지역은 모두 이슬람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서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서방 그리스도교와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 그리스도교는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 속에서, 각기 독자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면서, 서로 다른 역사를 갖게 됩니다.

## <요 약>

세계 교회사의 획기적인 사건들 : 70 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313 년 종교 자유 선언, 391 년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 476 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제국의 수도를 동쪽의 콘스탄티노플로 이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아들들에게 로마 제국을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의 분할 통치하게 함.

서로마 제국은 이민족들의 잦은 침입과 중앙 권력의 약화로 476 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

동로마 제국은 강력한 황제의 권력과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중앙 집권체제를 강하게 유지하면서 1453 년까지, 서로마 제국보다 천년이 넘게 더 존속.

서로마 제국을 점령한 게르만족은 로마의 선진 문화, 예술과 종교를 그대로 수용. 주교와 성직자들을 스승으로 삼고 예술, 문화, 종교 등 선진 문명을 배우고, 신앙을 갖게 됨.

교회는 새로운 민족과 정치 질서에 적응하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서게 됨.

이때부터 로마의 주교였던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수장 역할을 하게 됨.

반면, 동로마 제국에서의 교회는 여전히 강력한 국가 권력과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생존.

서로마 제국 멸망한 후, 신앙에 대한 충격과 회의에 빠진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놀라운 언변과 설득력, 탁월한 논리와 천재적인 학식으로 그리스도교 신학과 교리를 정리함.

405 년, 히에로니무스 성인의 라틴어 성경 번역본 출간으로 성경은 제국 전체에 더욱 빠르게 전해짐.

서로마 제국 멸망후, 이민족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복음 선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특히, 그레고리우스 1 세 교황은 북유럽 지역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

선교 지역이었던 아일랜드에 많은 수도원들이 생기고, 수도원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아일랜드는 신앙과 학문의 중심이 됨.

486 년, 프랑크 왕국이 전 유럽을 하나로 통일. 독실한 신자였던 샤를마뉴 황제는 수도원 설립을 지원하고, 수도원 학교를 짓는 등 교회를 위한 많은 업적을 세움.

서로마 제국보다 천년 넘게 더 지속된 동로마 제국은 동쪽의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서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서방 그리스도교와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 그리스도교는 각기 독자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고, 서로 다른 역사를 갖게 됨.